

도키와소 TOSHIMA CITY TOKIWASO MANGA MUSEUM

만화 뮤지엄

건물 관람 맵

본 뮤지엄은 '도키와소' 라는 1950년대의 아파트를 재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만화가들이 만화도 그리고, 식사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건물을 알면 만화가의 생활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의 비밀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① 전화박스

도키와소가 있던 시절에는 전화가 없는 집도 있었고, 편지나 전보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만화가들은 출판사에 연락할 때 도키와소 간판 옆에 있던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밖에 설치된 전화박스는 당시의 크림색 그대로, 전화기도 파란색으로 재현했습니다.

② '도키와소'의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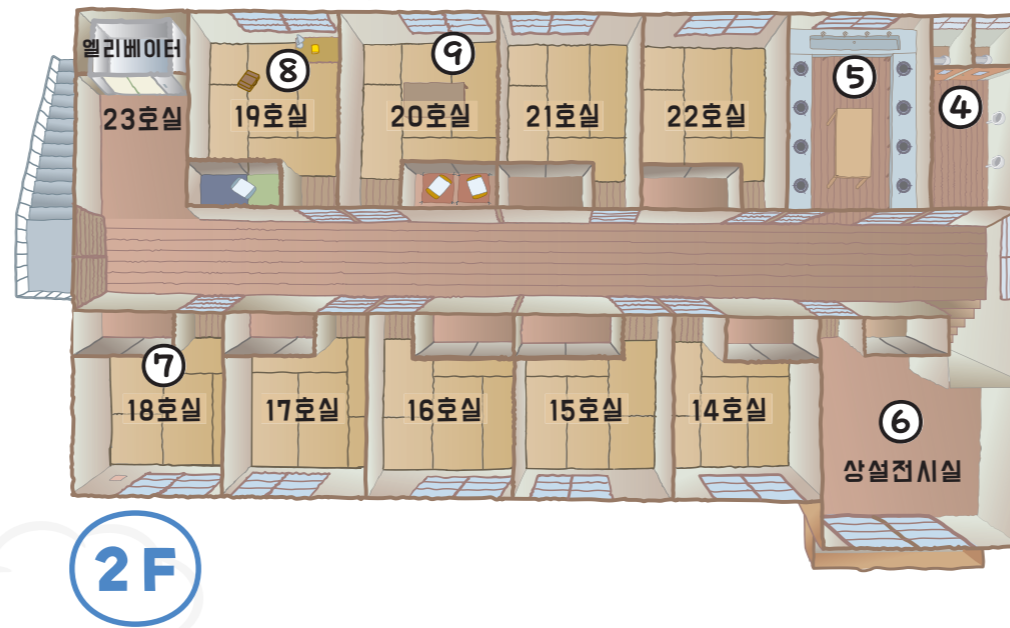
현관 앞의 작은길 모퉁이에 있던 간판에는 커다란 글자로 '도키와소' 라고 쓰여 있습니다. 몇 번인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뮤지엄에서는 사각기둥에 두 종류의 글자를 재현했습니다. 글자체가 다른 것을 눈치채셨나요? 뮤지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촬영 장소입니다. 만화가가 된 기분으로 기념 촬영을 해보세요.

③ 계단

당시의 도키와소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삐걱삐걱'하는 소리는 만화 속에도 등장합니다. 뮤지엄에서는 계단의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재현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당시의 만화가들은 편집자가 온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만화가는 마감일에 쫓겨서, 또 어떤 만화가는 작품 의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마다 이 삐걱삐걱 소리에 가슴 졸였겠지요. 여러분도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④ 화장실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었습니다. 만화가들이 살고 있었을 때는 재래식 변기로 2층에서 용변을 보면 토관을 통해 1층 밑의 항아리에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때 '똥톤(퉁)'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따서 '똥톤 화장실'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⑤ 공동 취사장

도키와소에는 1층과 2층에 하나씩 취사장이 있어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는 세면과 세탁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도키와소에 살았던 만화가의 감수를 받아 당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실감 나게 재현된 공간을 체감해 보세요.

⑥ 상설전시실

도키와소가 있던 마을 '시나마치' 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패널과 디오라마, 지역 분들이 제공해 준 마을의 옛날 사진 등을 전시하여 에도시대부터 쇼와시대에 이르는 마을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디오라마의 높이에 눈높이를 맞추면 당시의 거리가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⑦ 18호실

(야마우치 조지 작가의 방)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어시스턴트로 일했던 야마우치 조지의 방을 재현했습니다. 책장에 있는 책이나 영화 필름캔 등은 이시노모리가 자기 방이 짝차서 놓을 데가 없어지자, 옆방인 야마우치 방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⑧ 19호실

(미즈노 히데코 작가의 방)

도키와소에서 단 한 명의 여성 만화가였던 미즈노 히데코의 방을 재현했습니다. 미즈노가 이 방에 살았던 것은 이시노모리 쇼타로 및 아카쓰카 후지오와 함께 'U·마이아' 라는 공동명의로 합작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옷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상경하여 7개월 동안 거주 했습니다.

⑨ 20호실

(요코타 도쿠오 작가의 방)

도키와소에 입주하기 전에 아카쓰카 후지오와 공동생활도 했던 요코타 도쿠오의 방을 재현했습니다. 아카쓰카의 뒤를 쫓듯이 방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요코타도 이 방으로 입주했습니다. 자신이 구입한 TV로 취미인 스모나 야구 경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⑩ 외관

(장인 기술의 에이징)

이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조금 오래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사실은 도키와소가 지어진 지 10년이 지난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에이징'이라는 공법으로 빈티지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외벽은 비나 흙으로 더러워진 듯한 느낌을 주고, 실내의 도구 하나하나에도 손때 묻은 흔적을 표현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재현했습니다.